

제 1 강 왜 이스라엘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I.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몇 가지 다른 대상을 의미하는데 사용되어왔다

1.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의 자손들인 유대인
2. 지리적인 영역으로, **창세기 15 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으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는 땅**을 말한다 (삿 20:1). 이 땅은 역사를 통해 가나안,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 혹은 거룩한 땅으로 불리기도 했다.
3. 1948 년에 생긴 현대의 이스라엘 국가로써, 이는 1947 년 11 월 29 일 유엔 결의 181 조(II) 이후에 생겨났다. 이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세워진 세속적인 지도자에 의해 다스려지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보다는 훨씬 작은 땅을 차지한다.
4.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

B. 이 코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며, 족장들에게 약속된 땅을 지칭하는데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현대의 유대인 정부와 겹치거나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현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칭하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II. 이스라엘과 교회의 신비

²⁵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롬 11:25)

A. 로마서 11:25 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비”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약에서 “신비”라는 단어는 “신비로운, 혹은 알 수 없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사용될 때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계시되지 않아왔던 일에 대해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¹¹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막 4:11)

²⁵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²⁶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 (롬 16:25-26)

²⁵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²⁶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 (KJV 흠정역, 롬 16:25-26)

⁵¹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고전 15:51)

⁹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엡 1:9)

- B.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로운 이해함을 담고 있으며, 이는 이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이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된다. '신비'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는 '놀랍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 C. 신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감춰오신 부분이며, 하늘의 도움(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 D. 바울은 **로마서 9-11 장**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전반을 말해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이해하기 위해 힘을 쓸 것을 말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 동의하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할 것이라 말하며 이를 마친다.

²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KJV 흠정역, 입증하도록 하라) (롬 12:2)

- E. 나는 바울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신비를 이해하기는 했지만, 그조차도 이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믿는다.

³³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 11:33)

III. 하나님의 신비의 특징

- A. 하나님의 신비는 구속사 가운데 있는 그분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1.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아들 아래 두시기 위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 지를 이해함
 2.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계획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실지의 부분. 그분의 완전한 공의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실 것이다.
 3. 하나님의 **전략**: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왜 그렇게 행해 나가시는 지를 이해하는 부분이다. 이는 가장 많은 수의 인간의 마음이 자유 의지 가운데, 가장 작은 고통을 겪는 가운데 그분을 향한 충만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의 지혜를 말한다.
- B. 하나님의 뜻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1.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를 감취두심으로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와 지혜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도록 해 두셨다.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고전 2:14)
 2.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논리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추구하는 이들의 눈을 가리셨다.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1 세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눈에서 가려진 것처럼, 이스라엘과 교회 간의 관계의 신비는 자신의 지식을 하나님의 성령보다 높이며 신령한 자가 되지 않는 이들로부터 감취질 것이다 (고전 3:1).
20 ...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²¹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 ²⁵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 1:20-21, 25)
 3. 안타깝게도 교회가 1 세기 이래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접근해온 방식은 인간의 지혜와 철학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었고, 이는 유대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4. 초기 교회 교부 중의 하나였던 오리겐은 은유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널리 퍼뜨렸으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혜 아래 두는 방법이었다.

성경을 정확히 읽으려고 하는 이들은 각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가 뭘 의미하며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알아야 한다 (오리겐 – De Principiis IV, 1:19)

C. 하나님의 뜻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특징들

² ...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KJV 흠정역, 입증하도록 하라) (롬 12:2)

1.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행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며, 이는 아무 때나 바뀌거나 목적없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신데,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2. 기뻐하시고 (받으실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있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에 대해 동의하게 될 때, 이는 우리 마음에 기쁨과 매혹됨을 가져올 것이다.

3.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계획된 것이며, 때론 우리를 놀라게 만들며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던 방법대로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들을 시행하기 위해 선택하신 최선의 길로 예비하신 것이다.

⁹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¹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 19:9-10)

D. 하나님의 신비는 연약하고 깨어진 인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영광과 존엄함을 허락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며, 이는 바울이 1 세기 골로세 교회의 성도를 위해 기도한 부분이다 (골 1:9-11)

² ...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KJV 흠정역, 입증하도록 하라) (롬 12:2)

²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KJV 흠정역, 찾아내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잠 25:2)

IV. 왜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하는가?

A.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²⁵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 (롬 11:25)

바울이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지 말 것을 충고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B. 성경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이해와 신학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온다.

1.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신학(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있어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1 세기 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뜨겁고 논란이 되었던 교리적인 문제는, “이방인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였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정체성과 목적과 부르심, 이 모든 부분이 여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초대 교회를 거의 갈라놓기까지 했다 ... 오늘날, 모든 교회가 직면한 가장 뜨겁고 논란이 되는 교리적인 문제는, “유대인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이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다 (댄 그루버, “*The Church and the Jews – the Biblical Relationship*” p.viii)

2.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성경적인 온전한 이해가 없이는, 교회의 역할과 부르심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어렵다.

... 교회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그리고 자신의 땅으로 회복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도구이다. 우리가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복음과 자신의 메시아를 거절해온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비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아트 캐츠, “이스라엘과 교회의 신비”)

3. 우리가 만일 교회와 유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다음과 같다:
 - a. 우리는 현재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국가적인 정체성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이제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이 되었다.
 - b.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현재 잠시 멈춰진 상태이며, 교회가 휴거로 인해 이 땅에서 사라진 이후에 다시 재개될 것이다. 이 관점 안에서는 교회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간에 끼워 넣어진 존재가 된다. 이 관점에서 파생된 또 다른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 있다. 이 관점 안에서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인 것이 된다.
4. 디프로즈(Diprose)는 이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의 신학과 사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됨을 지적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는 이미 관계를 끝내셨다고 믿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때에 대한 관점과 교회의 필수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종말론과 교회론)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끼워 넣어진 부분이라고 믿는 동시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구원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과 선교(구원론, 선교론)에 대한 관점 또한 크게 해를 입게 된다.
5. 우리의 행동(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지)은 우리의 믿음(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학(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기반을 두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가지는 것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데 있어서 근본이 된다.

이 관계에 대한 이해함이 없다면,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우리가 누구인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자신의 부르심(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을 성취할 수도 없고, 자신의 최종 목적지(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에 다다를 수도 없게 된다. 교회는 이 관계를 성경에 기반해서 이해해야지, 전통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루버 p. viii)

6. 바울은 1세기 교회를 향한 자신의 서신서와 설교의 상당 부분을 유대인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도 동일한 부분임을 확신시키는 데에 사용했다. 오늘날 주님은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신선한 이해함을 부어주고 계신다.

C. 이스라엘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1.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14 ...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 16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 (슥 1:14,16)

하나님은 시온을 향해 큰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영광을 온 땅에 부어주는 데에 사용하실 선택된 도구이기 때문이다 (사 9:6-7)

2. 이스라엘은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선택되었다

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롬 9:17)

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롬 9:23)

하나님께서서는 심판 가운데 자신의 능력(공의)을 드러내시며 긍휼을 보이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능력과 긍휼을 드러내는 통로로 세움 받았다. 겔 36 장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23 절)ö

3. 바울의 마음의 부르짖음

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² (1 절에 포함됨) ³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 (롬 9:1-4)

사도인 바울의 마음의 부르짖음은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향해 가진 감성적인 사랑 그 이상의 것이었으며, 그는 여기서 그 누구도 감히 하지 않을 말을 언급하고 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 문제였다. 왜인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부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D.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마지막 때 계획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이해함 없이는 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나치 때의 일들을 무색하게 만들 재난을 앞에 두고 있고, 교회는 이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고 있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것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 (아트 캐츠, - “The Mystery of Israel and the Church”)

2. 제 2 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잘못된 신학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수많은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로 죽어갔다. 이는 교회가 이 일에 맞설 영적인, 물리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교회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교회는 온전히 성숙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 a.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보호되고 구원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마지막 때의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계신다 (사 62:6-7).
 - b.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진실된 초대교회와 같은 기독교 영성을 일으키심으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실 것이다 (롬 11:11).

E.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향해 명령하시는 바이다

‘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⁷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1.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교회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고,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의 편에 함께 서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2.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체 교회를 향해 명령하신 것이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주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KJV 흥정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자신의 유업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다. 즉,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쉬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3. 우리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F.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신부를 준비하는 선두주자 사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1.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열방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목적들을 선포할 메신저들을 부르고 계신다
2. 선두주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들만이 온 땅에 임할 진동에 의해 혼란에 빠지고 헤매는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이해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11:33).
3.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때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동의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대상 12:32).

G. 사단은 이스라엘을 없애 버리기 위해 전심을 다하고 있다

1.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마 23:39). 만일 사단이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사단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

...⁴ ... 용(사단)이 해산하려는 여자(이스라엘)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예수님)를 삼키고자 하더니⁵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승천)⁶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KJV 흠정역, 이것은 그들(이방인 성도들)이 천이백육십 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다)...¹³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¹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대 환란)를 양육 받으며¹⁵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¹⁶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¹⁷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방인 성도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 12:13-17)

2. 사단은 교회를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전략에 사용해오고 있다. 놀랍게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통로로 선택된 존재이다.
3. 반유대주의(반시온주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현대 반유대주의 아버지들은 신학자들이었다. 1930-1940 년 나치 통치 하에서 6 백만 유대인들을 죽여버린 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신학의 기초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H. 이스라엘에 대한 신비에 대한 무지는 명확한 결과를 낳게 된다

바울이 이처럼 경고한 신비는 이것이 유일했다. 우리가 다른 종류의 신비를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만일 이 신비를 놓치게 된다면 이는 교회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교회가 자신에게 속아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게 될 것이다. 교회는 거만하고 부풀어오르며, 자신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믿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자들이라고 여기는, 즉 자신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 즉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시며 교회를 이차적인 역할로 부르셨다. 우리는 나무에서 이전 원가지 백성들이 꺾여진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며,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의 단서와 같은 역할의 부르심이 있다 (아트 캐츠)

1.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반대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롬 11:22).
 - a. 우리는 자신의 의견이 지혜롭다고 여기게 된다. 즉, 우리는 우리 지혜나 계획이 하나님의 것보다 좋다고 여기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전혀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b. 우리는 원 가지에 대해 높은 마음을 품는다 (유대 민족)
 - c. 궁극적으로, 우리는 δ찍혀 나갈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잃음) (롬 11:21-22)
2.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는 중간 지대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양쪽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거나 (하나님 편에 서 있음),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대적의 전략에 동의하게 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3. 교회가 이스라엘의 문제에 양쪽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들을 성취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걸려 있다. 만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진실하지 않은 분으로 판명되며, 사단을 심판할 권세도, 온 땅을 다스릴 권세도 없는 분으로 판명되고 만다.
4. 이는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며, 이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없애 버리고자 한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지 않으며,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해온 정사와 권세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신학적인 입장이 한 나라를 멸절해버리는 결론으로 간 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2 차 세계대전).
5.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공부하는 것은 신학적인 궁금증이나 정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 이상의 일이다. 이는 수 세대를 걸쳐 흘러온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온 땅의 통치자로서 세우실 것이다 (시 2 편, 슥 12-14 장).

V.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비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온전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존경심과 감사함을 가지며, 이 신비를 이해하길 소망해야 한다. 이는 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진 관계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신비를 귀하게 여기시며, 이 신비가 잘못 다루지거나, 하찮게 여겨지거나, 이 신비를 온전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무례하게 난도질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Katz)

A. 아는 것δ과 입증하는 것δ간의 차이 (롬 12:1-3)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등에 대한 (정보를) **알며**, 또 이를 점검하고 시험해 봄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입증(또는 분별)해볼 것**을 격려했다.

B.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감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의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책들이 있고, 학문적인 많은 토론이 있어왔다. 우리가 이에 대한 참된 이해함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다. 단 9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큰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 구절들은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1. **‘책(성경)을 통해’** (단 9 장) 6 성경을 성실하게 연구해 나감
2. 우리가 받은 작은 것들을 두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이해해 나가는지 배워나감**

C. 6책(성경)을 통해6 이해해 나감: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아닌 능력 많은 똑똑한 학자들의 성경 해석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성경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왔지만, 이는 때로 성경 해석이라는 중요한 작업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손이 아닌,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6성경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도록6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소수의 엘리트 학자들의 손에 다 맡겨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많은 해를 끼치게 되었으며,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닫아버리고 자신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아버렸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기도하며, 이해함을 가진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쓰여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문법적인 이해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성경의 대부분의 부분은 언어(원어, 혹은 번역된 언어)를 있는 그대로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해석하기에 어렵지 않다. 즉, **상식적으로 의미가 이해되었다면, 굳이 다른 의미를 더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단어나 구절, 문장이 의미하는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의미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 즉, 우리의 해석은 문장에 있는 단어나 문법에 적절한 결론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경이 6예루살렘6 혹은 6시온6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는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에 있는 실제적인 도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문장에서 상징적인 언어가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고파서 친구에게 “나는 소 한마리도 다 먹을 수 있어”라고 말할 때, 이는 우리가 정말로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상징적인 언어”로써, 우리가 친구에게 정말로 배가 많이 고파서 밥을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요 15:5), 이는 그분이 정말 뿌리나 나뭇가지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로써 제자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문장 안에서 상징이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어떤 구절이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문장 안에서 일반적으로 언급이 된다. 대부분의 상징들은 성경 자신이 설명하고 있고, 해당 문장 안에서 그 의미가 설명되고 있다. 상징을 해석할 때는, 우리는 최대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 상징이 사용되고 있는 구절의 해당 문맥은 대부분 이 상징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 1:20 절은 동일한 장에서 사용된 별과 촛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상징의 예:

12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 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 (계 1:12,16)

상징을 해석해주는 구절의 예:

20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계 1:20)

2.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말씀을 해석하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저자나 수신자의 역사적인 배경을 최대한도로 고려해야 한다. 성경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으며, 어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와는 다른 문화 안에서 살던 사람들을 위해 수천년 전에 기록된 책이다. 따라서 21 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해당 단어와 구절, 어떤 개념들이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 구절이 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아닌, “이 구절이 당시 이 구절을 읽었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이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1 세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때, 바울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부분을 더 깊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D. 금식과 기도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에 대해 접근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이해가 제한적임을 인정하며 다니엘과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인데, 이는 우리가 옳은 것을 말했기 때문이 아닌, 그분이 그분을 찾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비를 더욱 알려주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님을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삶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골 1:1-9).

E. 우리는 이 신비에 대해 겸손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 20 ...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롬 11:18, 20)

F. 로마서 12 장, 바울의 ὁ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알게 된 후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에 압도되었으며 (롬 11:33-36),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이해함)의 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동의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다.

우리가 계시(이해함)의 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¹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 (롬 12:1)

- a.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적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우리의 뜻과 지혜이다.
- b. 제물은 죽은 상태이다. 우리는 자신이 이 세대의 지혜와 우리의 육적인 소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혜에 대해 산 자가 되어야 한다.
- c.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

- d.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되, **기도와 (시간), 음식과 (힘), 베푸는 것과 (능력),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해 나가야 한다 (롬 12:9-20).
- e.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훨씬 높으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2. ²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 (롬 12:2)

- a. 이 세대의 지혜는 다 없어질 것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보다 학자들이나 이 세대의 철학자(미디어 등)들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
- b. (고후 5:16) ⁶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육을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방법 그대로, 사랑을 입은 자들로 바라봐야 한다 (롬 11:28).
- c.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기반으로 사랑하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고 깨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3. ² ¹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 (롬 12:2)

- a.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 새롭게 됨

우리는 그분을 ⁸바라보는 데⁸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 (시 27:4).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⁸입증하고 ⁸분별⁸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만일 그분이 어떤 분이신 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분이 어떤 일을 왜 행하시는 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 지를 더욱 알게 될 때,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변화되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하는 신랑이심을 전혀 모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 b.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봄에 있어 새롭게 됨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분께 매우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각자 특별하고 다른 역할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더욱 사랑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이해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잔인하며, 복수심으로 차 있거나, 예측 불가능하게 바뀔 수도 있는 분으로 바라보게 된다.

- c.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봄에 있어 새롭게 됨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즉 그들은 그분에게 특별하고 가치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한 몸의 다른 부분임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에게 의존적이 되도록 만드셨다 (롬 11:31).

VI. 이 코스가 추구점이 아닌 것들

- A.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가지는 특별한 위치를 인식하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롬 10:12).
 - 1. 구원에 관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
 - 2.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모든 열방으로부터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을 모으시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12 장의 아브라함 언약의 목적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는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 B.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되려고 한다거나,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우리의 공통의 뿌리와 구원이 예수님 이외에는 없음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 C.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맞다고 여기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
- D. 우리는 단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지금 이스라엘 땅과 전세계 유대인들 가운데 부흥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구한다.